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 분석 - ‘행위’와 ‘정체성’ 의미를 중심으로 -

이화숙* · 원순옥**

요약 이 글은 ‘북한에서 온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을 행위와 정체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1,126편의 학술 논문 제목에 121종의 ‘명칭’이 쓰였는데,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명칭’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명칭’은 2000년 이후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성별과 연령, 행위, 정체성 등을 내포하는 어휘가 추가되어 복합 구성을 보인다. ‘명칭’ 가운데 통칭(統稱)으로 쓰이는 예는 25종이며, 여성과 청소년 집단에 대한 ‘명칭’은 각 14종으로 과도하게 혼용되고 있다. ‘명칭’을 구성하는 어휘 중에는 행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많다.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는 시기별로 사용 양상이 다른데,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는 ‘이주’,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휘는 ‘주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미의 객관성과 현재성을 고려하여 ‘북한이주주민’이라는 명칭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명칭,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주민, 북한이주주민

1.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 집단 가운데,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학술 논문의 제목에 사용된 이들 집단에 대한 명칭을 계량화하고,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 성분을 분석하여

* 대구가톨릭대, 국어국문학, kkokkomai@daum.net

** 경운대, 사회복지학, nasongjung@hanmail.net

주요 개념들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가치중립적이고도 차별과 편견, 고정관념을 배제한 명칭을 모색하는 데도 연구 목적이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였다.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그 수치가 최고에 달하였으며, 1994년부터 이들의 국내 입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¹ 사회적으로는 ‘북한에서 온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아울러 높아졌는데, 이들 집단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이하 ‘명칭’)들이 만들어져 혼용되고 있다. 특히 학술 논문에는 무려 120종이 넘는 ‘명칭’이 쓰이고 있어, ‘명칭’ 자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의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²

‘명칭’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6년 12월 9일 통일외무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 탈출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그곳을 떠나는 행위’와 ‘북한을 떠난 주민’을 어떤 용어로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행위에 대해서는 ‘탈출’과 ‘이탈’이, 사람에 대해서는 ‘refugee’, ‘escapee’, ‘departee’ 등의 개념과 함께 ‘離北住民’,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월남이주자’ 등의 명칭이 제안되기도 했다.³ 결국 1997년 1월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법률 용어로 공식화 하였다.

법률 용어로 이들 집단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규정하지만, ‘탈북자’, ‘탈북민’ 등의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집단 내에서는 ‘자유이주민’이라는 호칭을 제안하기도 했다.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이 다양한 형태로 구

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1997~2015년)에 게재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발생 배경, 국내 입국 현황 등을 참고하였음.

2 국내로 입국한 북한주민을 가리키는 명칭이 혼란하다는 사실은 최근 세계일보(2016년 10월 2일)의 “탈북민 3만명 시대, 새터민? 귀순자? ... 호칭 정리 안 돼”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참조한 신문기사는 모두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에서 검색한 내용임).

3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통일외무위원회 1996년 12월 9일 회의록 참조(<http://nas.na.go.kr>).

4 한겨레 신문, 2001년 7월 9일자 “탈북자 68% 호칭 불만 ‘자유이주민 불러주오’”, 경향 신문, 2001년 12월 1일, “탈북자들 ‘우린 자유이주민’, 호칭변경 청원서 국회제출”, 한겨레 신문, 2001년 12월 14일, “탈북자 대신 자유 이주민으로-연합단체 결성. 호칭변경 국회 청원” 등 기사 참조.

성되어 있는 것은 이들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복잡한 데 우선 원인이 있다. 우선 혈통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포’이다. 하지만 한반도 내에서 거주한, 법률상 ‘주민’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재외동포와 다른 점이 있다. 경제난과 제도적 억압을 피해 국경을 넘어왔다는 점에서 ‘난민’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 또,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외부로부터 편입해 온 소수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주민 정책의 대상은 아니라는 특징도 있다.⁵

대상이 갖는 모든 개념을 ‘명칭’을 통해 표현할 수는 없다. 이는 대상의 속성이 중층적일 뿐만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⁶ 따라서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개별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명칭’을 생성하는 것은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 새로이 등장한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이 소수자를 구별하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국립국어원, 2010: 3), ‘명칭’에 대한 구성과 의미 분석을 통해 보다 가치중립적인 명칭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술 논문의 제목에서 추출한 ‘명칭’의 형태는 120종이 넘으며, 통칭(統稱)으로 쓰이는 것도 25종에 이른다.⁷ 집단 내부에서도 통일된 ‘명칭’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김화순·최대석, 2011: 51-56), 학계와 언론에서도 이들에 대한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명칭’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명칭’의 혼용은 “이들의 정체성

5 이용승(2016: 5)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이주민인 동시에 국적자이자 민족적 동일성을 공유하는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대석·박영자(2011: 203)에서는 “이들은 ‘공민’과 ‘국민’의 국가적 경계인이며, 국적을 가진 ‘국민’이며 동시에 소수집단인 유입 ‘이주민’의 이중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온 집단이 우리사회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는 만큼 이들 집단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 또한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다.

6 강정에 외(2013)을 참고하면 북한을 벗어나는 동기가 과거의 식량난 외에 경제적인 이유 혹은 삶의 질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명칭’을 사용하는 현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 서종남(2010)에서는 7개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검토하였는데, ‘새터민, 북한이주민, 북한이탈자·주민, 탈북자, 새터민 가정, 새터민자녀’ 등이 혼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혼란과 한국사회의 혼란스러운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최대석·박영자, 2011: 203).

이 글에서는 학술 논문의 제목 속에 사용된 ‘명칭’의 형태를 먼저 수집하고, 시기별로 사용 현황을 계량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명칭’이 담고 있는 주요 의미 개념과, ‘명칭’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의 변화를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명칭’이 지칭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범주와 이미지로 분류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이민경·이수정, 2011: 2-3 참조) 이 글은 ‘명칭’ 자체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성찰을 통해 ‘북한에서 온 집단’을 가리키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명칭’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이하 ‘명칭’)의 현황을 개괄하기 위해서는 정부 문건, 미디어, 학술 논문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수집의 편이를 고려하여 관련 학술 논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명칭’의 현황을 개괄하기 위해 학술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의 상세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귀순’, ‘탈북’, ‘북한’, ‘새터민’을 키워드로 입력한 후, 등재후보지 이상에 수록된 논문 제목을 목록화 하였다. 그 결과 출력된 6,996편 중(검색일 2016년 9월 30일) 중복 등록된 것과 논의의 대상이 분석의 범주와 무관한 것 등을 제외하고 ‘명칭’이 포함된 학술 논문 1,126편의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⁸

논문 제목을 검색하여(그림 1의 (1)단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집단’을 일

8 이 글의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은 이화숙(2013)을 참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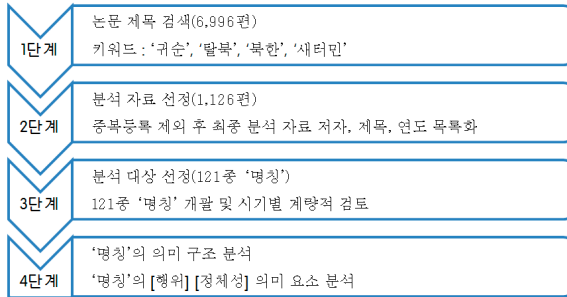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컨는 명칭이 포함된 학술 논문 1,126편을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고 저자, 제목, 연도를 포함한 간략 서지를 목록화 하였다(그림 1의 (2)단계). 1,126편의 논문 제목을 통해 '북한에서 이주해 온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 121종을 추출하여 계량화하여 개괄하고 이들 '명칭'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았다(그림 1의 (3) 단계). 아울러 '명칭'에 반영된 [행위]와 [정체성] 의미 자질을 내포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명칭'을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명칭'의 현황

학술 논문의 제목에 '명칭'이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126편 학술 논문의 제목에 사용된 명칭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약 95%가 2000년 이후에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연도 별로 '명칭'의 출현을 빈도와 비율로 계량화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학술 논문에서 2000년 이후부터 '명칭'의 출현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26회 출현한 '명칭'의 분포를 살펴보면, 1999년까지 5.1%(57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0.3%(454회), 2010년부터 2016년(9월)까지 54.6%(615회)가 쓰였는데, 2010년 이후 논문제목에 '명칭'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명칭'의 대상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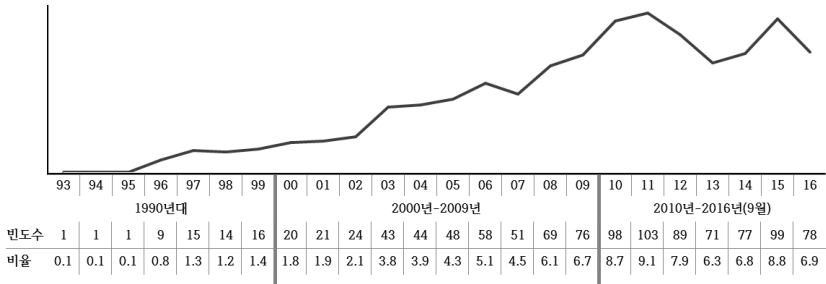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명칭’의 사용 현황(학술 논문 제목)

자 집단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의 일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 또한 최근의 일임을 시사한다.

대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학술 논문에 쓰이는 ‘명칭’의 형태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1은 연도별로 학술 논문의 제목에 새로이 출현하는 ‘명칭’의 형태와 출현빈도를 제시한 것이다.⁹

1,126편의 학술 논문에 쓰인 ‘명칭’은 형태를 기준으로 121종이 조사되었

표 1. 연도별 ‘명칭’의 출현 현황

| 출현연도(종류) | ‘명칭’의 형태 | 계(비율) |
|-----------|---|----------------|
| 1993년(1종) | 귀순자(3) ¹⁰ | 18종 (14.9%) |
| 1994년(1종) | 탈북동포(1) | |
| 1995년(1종) | 귀순동포(1) | |
| 1996년(6종) | 귀순북한동포(1), 북한귀순자(1), 북한이주민(24), 북한탈출주민(2), 탈북이주자(4), 탈북자(165) | |
| 1997년(3종) | 북한이탈난민(2), 북한이탈주민(402), 탈북주민(8) | |
| 1998년(3종) | 이탈귀순자(1), 탈북북한동포(1), 탈북북한주민(1) | |
| 1999년(1종) | 탈북여성(47) | |
| 2000년(2종) | 탈북난민(6), 탈북아동(6) | |

9 논문제목에서 명칭에 쓰인 띄어쓰기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붙여 쓰기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처럼 붙여 쓰기 하여 형태를 조작하였다.

10 이 표에서 괄호 속에 병기한 숫자는 해당 형태가 출현하는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3)’이라고 표시한 것은 분석 대상인 1,126편의 학술 논문 제목에 해당 형태가 3회 출현했다는 의미이다.

| | | |
|------------|---|----------------|
| 2001년(2종) | 탈북의료인(1), 탈북청소년(62) | 50종 (41.3%) |
| 2002년(2종) | 북한이탈주민(새터민)(1), 탈북인(5) | |
| 2003년(6종) | 북한이탈부모(2), 북한이탈여성(31), 북한이탈청소년(59), 자유이주민(2), 탈북가정(1), 탈북유아(2) | |
| 2004년(3종) | 북한출신대학생(1), 탈북아동청소년(3), 탈북이주민(17) | |
| 2005년(7종) | 북한이탈노인(2), 북한이탈아동(4), 새터민(80), 새터민어머니(3), 탈북부모(1), 탈북신학생(1), 탈북학생(17) | |
| 2006년(5종) | 북한이탈학생(5), 북한출신청소년(1), 새터민(북한이탈주민)청소년(1), 새터민청소년(17), 여성새터민(3) | |
| 2007년(6종) | 새터민가족(1), 새터민대학생(3), 새터민부모(1), 새터민아동(3), 새터민아동·청소년(3), 새터민여성(9) | |
| 2008년(6종) | 북한이주민여성(1), 새터민유아(1), 새터민초등학생(1), 새터민학생(3), 청소년새터민(1), 탈북새터민청소년(1) | |
| 2009년(6종) | 남성북한이탈주민(1), 북한(탈북)청소년(1), 북한이탈여성노인(1), 북한이탈주민청소년(1), 새터민동료상담자(2), 새터민중고령자(1) | |
| 2010년(7종) | 북한새터민(1), 북한이탈중년여성(1), 북한출신배우자(1), 여성북한이탈주민(2), 탈북대학생(9), 탈북새터민(2), 탈북후기청소년(1) | |
| 2011년(9종) | 북한이탈가정(2), 북한이탈여성주민(1), 북한이탈유아(1), 북한이탈주민자녀(청소년)(1), 북한이탈주민학생(1), 새터민(탈북자)(1), 새터민자녀(1), 탈북디아스포라(2), 탈북정착자(1) | 53종 (43.8%) |
| 2012년(4종) | 무국적탈북자(1), 북한이탈어린이(1), 북한이탈어머니(4), 탈북가족(1) | |
| 2013년(14종) | 북한이탈간호대학생(1), 북한이탈남성주민(1), 북한이탈여성자녀(1), 북한이탈주민가정자녀(1), 북한이탈주민어머니(6), 북한이탈주민여성(1), 북한이탈청년(1), 북한이탈학령전기아동(1), 여성탈북자(1), 탈북민(12), 탈북새터민대학생(1), 탈북여성이주민(1), 탈북중학생(1), 탈북초등학생(1) | |
| 2014년(8종) | 대학내새터민들(1), 북한이탈가정유아(1), 북한이탈주민가정(1), 새터민여아(1), 탈북1인가구(1), 탈북자간첩(1), 탈북중·고령자(1), 탈북학생(청소년)(1) | |
| 2015년(6종) | 북한이탈대학생(2), 북한이탈사회복지대학대학생(1), 북한이탈주민자녀(1), 북한이탈주민자녀(아동청소년)(1), 탈북교사(1), 탈북배경청소년(1) | |
| 2016년(12종) | 북한이탈가정아동(1), 북한이탈고등학생(1), 북한이탈아버지(1), 북한이탈주민젊은세대(1), 북한이탈초등학생(1), 북한출신사회복지사(1), 여성탈북민(2), 탈북간호대학생(1), 탈북고등학생(1), 탈북청년(1), 탈북학부모(1), 해외체류탈북자(1) | |

다. 2000년까지 18종의 형태가 쓰이다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50종이, 2011년부터 2016년(9월) 사이에 53종의 형태가 새로이 생겨났다. 85%에 달하

는 103종의 ‘명칭’ 형태가 2000년 이후에 출현한다.

2000년까지의 ‘명칭’을 살펴보면, 지칭 대상 일반을 가리키는 통칭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후 [성별]과 [연령], [행위], [정체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들이 추가되어 ‘명칭’이 다양한 형태로 생성될 뿐만 아니라 내적 구조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명칭’의 형태가 쓰인 빈도는 1회에서 많게는 402회에 이르는 것도 있어, 누적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인다. 학술 논문의 제목에 동일한 형태가 10회 이상 쓰인 것은 121종 중 12종(10%)에 불과하다. 특히 학술 논문의 제목에 단 1회씩 등장하는 형태는 무려 77종(63.6%)에 이르는데,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24종, 2011년부터 2016년(9월) 사이에 46종이 이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온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특징에 주목한 결과, 논문의 제목에 쓰인 ‘명칭’ 또한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명칭’ 가운데 통칭(統稱)으로 쓰이는 예는 25종에 이른다.

【통칭으로서의 ‘명칭’】

귀순동포, 귀순북한동포, 귀순자, 무국적탈북자, 북한귀순자, 북한새터민, 북한이주민, 북한이탈난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탈귀순자, 자유이주민, 탈북난민, 탈북동포, 탈북디아스포라, 탈북민, 탈북북한동포, 탈북북한주민, 탈북새터민, 탈북이주민, 탈북이주자, 탈북인, 탈북자, 탈북정착자, 탈북주민

위에 제시한 통칭 중에서 ‘북한이탈주민(423회)’과 ‘탈북자(168회)’, ‘새터민(135회)’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새터민’과 ‘탈북자’는 2010년부터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¹¹ ‘탈북이주민’과 ‘탈북민’은 전체 사용 빈도는 낮지만 2010년 이후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명칭’ 중 하나이다.

11 최원오(2012: 268)에서는 “관련 학계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보다는 ‘탈북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글에서 분석한 결과와 다른 내용이다.

특히 [성별]과 [연령]의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과 청소년 집단에 대한 ‘명칭’이 과도하게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집단에 대한 ‘명칭’】

북한이주민여성, 북한이탈여성, 북한이탈여성노인, 북한이탈여성자녀, 북한이탈여성주민, 북한이탈주민여성, 북한이탈중년여성, 새터민여성,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새터민, 여성탈북민, 여성탈북자, 탈북여성, 탈북여성이주민

여성 집단에 대한 ‘명칭’ 중에는 ‘북한이탈여성주민’, ‘북한이탈주민여성’, ‘여성북한이탈주민’처럼 용어의 순서만 달리한 것도 있다. ‘명칭’의 대상 중 여성을 변별하는 데 쓰인 ‘여성’은 14종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1999년 ‘탈북여성’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여성탈북민’에까지 꾸준히 쓰였는데, ‘여성’은 2000년 이전에는 ‘명칭’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핵어로 쓰이던 것이, 2000년 이후에는 해당 집단 내에서 여성을 변별하는 구별 표지로서 핵어의 앞에 놓이는 차이를 보인다.¹²

한편, 여성 집단에 대한 ‘명칭’이 과도하게 혼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집단의 성별 분포와 관련이 크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8월) 현재 여성의 비율이 71%에 이른다. 여성의 비율은 2002년 55%로 비율상으로 남성의 수를 초월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8월)을 기준으로 80%에 이르고 있다.¹³

청소년 집단에 대한 ‘명칭’은 14종이 쓰이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새터민’을 제외한 13종에서 ‘청소년’이 ‘명칭’의 가장 오른쪽에 놓여 핵어로 기능한다는

12 유정물의 경우 핵어(核語)는 명칭의 가장 오른쪽에 놓이며, 대상의 정체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온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에서 ‘여성’이 핵어로 쓰인 예는 ‘탈북여성’(1999), ‘북한이탈여성’(2003), ‘새터민여성’(2007), ‘북한이주민여성’(2008) 등이 있다. 한편, ‘여성’이 구별 표지로 쓰인 예는 ‘여성북한이탈주민’(2010), ‘북한이탈여성주민’(2011), ‘여성탈북자’(2013), ‘탈북여성이주민’(2013), ‘여성탈북민’(2016) 등이 있다.

13 참고를 위해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다음 표로 제시한다.(<http://unikorea.go.kr>)

특징이 있다.

【청소년 집단에 대한 ‘명칭’】

북한(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자녀(청소년), 북한이탈주민자녀(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출신청소년, 새터민(북한이탈주민)청소년, 새터민청소년, 청소년새터민, 탈북배경청소년, 탈북새터민청소년, 탈북청소년, 탈북학생(청소년), 탈북후기청소년

‘북한에서 온 집단’ 중에는 가족 단위가 많은 것이 한 특징이다. 청소년 집단은 중앙 부처에서 운영 중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며(김도혜 2012: 312), 교육과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청소년 집단에 대한 여러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¹⁴ 청소년 집단에 대한 ‘명칭’ 중에 사용 빈도가 1회인 것이 무려 10종에 달하는데, 연구자들의 자의적인 이름짓기(n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대상의 사회적 위치와 연령, 성별 등 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여 명칭이 생성되는 만큼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명칭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명칭’의 경우 동일한 특성을 갖는 범주 집단에 대한 이칭(異稱)이 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칭’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대상을 지칭할 용어를 선정하는 합의 과정이 아직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단위: 명)

|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8월 (잠정) | 합계 |
|----------|------|-------|-------|-------|-------|-------|-------|-------|-------|-------|-------|-------|-------|-------|-------|-------|---------------|--------|
| 남 | 831 | 565 | 510 | 474 | 626 | 424 | 515 | 573 | 608 | 662 | 591 | 795 | 404 | 369 | 305 | 251 | 181 | 8,684 |
| 여 | 116 | 478 | 632 | 811 | 1,272 | 960 | 1,513 | 1,981 | 2,195 | 2,252 | 1,811 | 1,911 | 1,098 | 1,145 | 1,092 | 1,024 | 713 | 21,004 |
| 합계 | 947 | 1,043 | 1,142 | 1,285 | 1,898 | 1,384 | 2,028 | 2,554 | 2,803 | 2,914 | 2,402 | 2,706 | 1,502 | 1,514 | 1,397 | 1,275 | 894 | 29,688 |
| 여성 비율 | 12% | 46% | 55% | 63% | 67% | 69% | 75% | 78% | 78% | 77% | 75% | 71% | 73% | 76% | 78% | 80% | 80% | 71% |

14 이민경·이수정(2011)에서는 가치와 상징이 제거된 기술적 언어이면서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탈북청소년’이다(윤혜순, 2014: 129).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소수 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은 사회적 낙인으로¹⁵ 이어져 차별과 배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¹⁶ 따라서 새로운 집단에 대해 ‘명칭’을 부여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학계와 사회 전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의 과정 또한 중요한 것이다.

3. ‘명칭’의 구성과 의미 요소

1) ‘명칭’의 구성

‘명칭’은 두 가지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어휘들을 조합하여 대상의 특성을 ‘명칭’에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주로 ‘북한’, ‘탈북’, ‘이탈’, ‘주민’ 등의 명사와 [사람]의 의미를 더해주는 ‘-자’, ‘-민’과 같은 접미사가 결합한 복합 구성을 보인다. 명칭을 구성하는 데 쓰인 형태를 형태소 단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의 구성에 쓰인 형태소】

무-, -민, -사, -생, -인, -자

가구, 가정, 가족, 간첩, 간호, 고등, 교사, 국적, 귀순, 난민, 남성, 노인, 대학, 동료, 동포, 디아스포라, 배경, 배우, 복지, 부모, 북한, 사회, 상담, 새터, 세대, 신학, 아동, 아버지, 어린이, 어머니, 여성, 여아, 유아, 의료, 이주, 이탈, 자녀, 전기, 젊은, 정착, 주민, 중고령, 중년, 중학, 청년, 청-소년, 체류,

15 낙인(stigma)은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량하다는 것을 것을 알리기 위해 몸에 기호를 새겨 넣은 것이다. 낙인은 부정적인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식은 단순히 표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개인과 집단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그 사회의 표준화된 관점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이현숙·유해숙, 2015: 181).

16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칭을 사회적 차별 인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개선점을 논의한 것으로 국립국어원(2010)이 있다.

초등, 출신, 탈북, 탈출, 학령, 학-부모, 학생, 해외, 후기

위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데, ‘새터민’, ‘탈북자’, ‘탈북주민’과 같이 2종의 형태가 결합한 구성이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젊은세대’ 처럼 5종 이상의 형태가 결합하여 복잡하게 이루어진 ‘명칭’도 있다. ‘명칭’의 구성이 복잡할수록 [연령]과 [성별] 등 의미를 첨가하여 대상 집단을 다시 세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는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 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결합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¹⁷

표 2를 보면 3종 이상의 형태가 결합한 유형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2종의 형태가 결합한 것이 22.9%, 4종 형태가 결합한 것이 21.9%이며, 5종이 결합한 명칭은 3종(2.6%)이 있다. 의미 구조를 분석해보면 [행위]와 [정체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요소가 가장 적극적으로 ‘명칭’에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칭’을 구성하는 형태 수가 많아질수록 내적인 구조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명칭’에 개입하는 형태가 각각의 개념으로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만큼, 구조가 복잡하면 ‘명칭’에 담긴 개념과 의미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3종의 형태가 결합한 것 중에 ‘북한새터민’, ‘탈북새터민’, ‘탈북북한주민’은, ‘북한’과 ‘탈북’ 혹은 ‘탈북북한’이 핵어[X]인 ‘새터민’과 ‘주민’을 구체화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인 만큼 그 쓰임이 잉여적이다. 이러한 ‘명칭’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갖고 있는 특이성과 ‘탈북’이라는 행위가 내포하는 극적인 상황을 두드러지게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명칭’을 통한 정보 전달보다는 오히려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어(造語)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온 집단을 일컫는 ‘명칭’은 그 사용이 혼란한 문제에 더하여 ‘명칭’을 구성하는 의미 요소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아울러

17 표 2에서는 괄호 속에 어휘를 병기한 ‘북한(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자녀(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자녀(청소년), 새터민(북한이탈주민)청소년, 새터민(탈북자), 탈북학생(청소년)’ 등 7종을 제외하였다.

표 2. 명칭의 결합 구조와 용례

| 종류 (비율) | 구조 | 용례 |
|---------------------|--------------------------|---|
| 2종 결합 (22.9%) | [[2][1]] (26) | 귀순자, 귀순동포, 새터민, 탈북가정, 탈북가족, 탈북고등학생, 탈북교사, 탈북난민, 탈북대학생, 탈북동포, 탈북디아스포라, 탈북민, 탈북부모, 탈북신학생, 탈북아동, 탈북여성, 탈북유아, 탈북인, 탈북자, 탈북주민, 탈북중학생, 탈북청년, 탈북청소년, 탈북초등학생, 탈북학부모, 탈북학생 |
| 3종 결합 (52.6%) | [[3][2][1]] (38) | 북한이탈아동, 북한이탈여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고등학생, 북한이탈초등학생, 북한이탈학생, 북한이탈어머니, 북한이탈가정, 북한출신청소년, 북한탈출주민, 새터민대학생, 새터민청소년, 새터민어아, 새터민학생, 새터민자녀, 새터민부모, 새터민청소년, 새터민유아, 새터민초등학생, 새터민아동, 새터민가족, 새터민여성, 새터민어머니, 탈북배경청소년, 탈북자간첩, 탈북후기청소년, 북한이탈부모, 북한이탈대학생, 북한이탈유아, 북한이탈난민, 북한이탈노인, 북한이탈어린이, 북한이탈아버지, 북한출신사회복지사, 북한출신대학생, 북한출신배우자 |
| | [[3][2][1]] (22) | 귀순북한동포, 북한귀순자, 북한새터민, 청소년새터민, 여성새터민, 북한이주민, 여성탈북자, 여성탈북민, 탈북1인가구, 탈북간호대학생, 탈북북한동포, 탈북북한주민, 탈북새터민, 탈북아동청소년, 탈북의료인, 탈북이주자, 탈북이주민, 탈북정착자, 탈북중고령자, 무국적탈북자, 이탈귀순자, 자유이주민 |
| 4종 결합 (21.9%) | [[4][3][2][1]] (2) | 여성북한이탈주민, 남성북한이탈주민 |
| | [[4][3][2][1]] (11) | 대학내새터민, 북한이탈간호대학생, 북한이탈사회복지대학대학생, 북한이탈중년여성, 북한이탈학령전기아동, 북한이주민여성, 새터민중고령자, 탈북새터민청소년, 탈북새터민대학생, 탈북여성이주민, 해외체류탈북자 |
| | [[4][3][2][1]] (12) | 북한이탈가정아동, 북한이탈가정유아, 북한이탈남성주민, 북한이탈여성주민, 북한이탈여성자녀, 북한이탈여성노인, 북한이탈주민학생, 북한이탈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어머니, 북한이탈주민청소년, 북한이탈주민여성, 북한이탈주민자녀 |
| 5종 결합 (2.6%) | [[5][4][3][2][1]] (1) | 북한이탈주민가정자녀 |
| | [[5][4][3][2][1]] (1) | 북한이탈주민젊은세대 |
| | [[5][4][3][2][1]] (1) | 새터민동료상담자 |

필요한 시점이다.

2) ‘명칭’을 구성하는 의미 요소

(1) [행위]의 의미 요소

‘명칭’을 구성하는 데 가장 폭넓게 쓰인 의미 요소는 [행위]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121종의 ‘명칭’에서 82.6%(100종)에 [행위]의 의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서 온 집단’이 갖는 여러 속성 중 ‘북한을 벗어나다’는 행위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명칭’에서 ‘귀순’, ‘북한이탈’, ‘이주’, ‘탈북’, ‘탈출’이 [행위]의 의미를 내포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북한이탈’과 ‘탈북’은 [-북한 거주]라는 정보를 아울러 제공한다. 이들 형태는 시기별로 사용 양상이 다른데, 그 현황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명칭’에 [행위]의 의미를 추가하는 형태 중 ‘귀순’과 ‘탈출’은 2000년 이전에 소폭 쓰이다가 ‘명칭’ 속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명칭에 [행위] 의미를 담기 위해 ‘탈북’(51.3%)이 가장 많이 쓰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북한이탈’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2016년(9월)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이 명칭에 포함된 비율은 59.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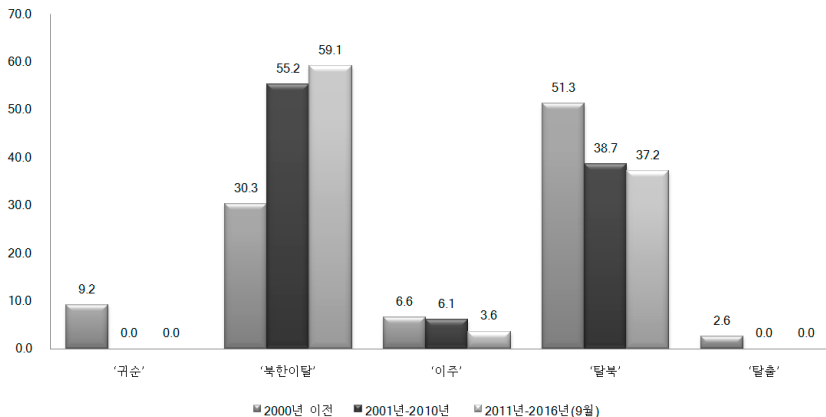


그림 3. [행위] 의미 요소의 시기별 사용 현황(단위: %)

다. ‘북한이탈’은 현재 법률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영향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¹⁸ ‘명칭’에서 ‘귀순’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1990년대 초까지 몇몇 북한의 군인과 고위 관료, 해외 유학생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에 사용한 한정적인 용어이다. 이 경우 ‘귀순’은 북한(괴뢰집단)에 대한 ‘항거’의 결과로서, 다분히 체제우월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귀순’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기보다는 정부와 언론 등 미디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¹⁹ 당시 귀순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아서 사용 비율 또한 낮게 나타난다. ‘명칭’에 ‘탈출’이 포함된 것은 1996년 정부가 제안한 법률의 명칭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이다. 정부의 최초 제출안이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

18 ‘북한에서 온 집단’과 관련한 법률명과 대상에 대한 정의를 참고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연도 | 법령명 | 대상에 대한 정의 | 비고 |
|-------|--------------------------|---|-----------------------|
| 1962년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 “북한괴뢰집단의 군인, 간부로 복무·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북한괴뢰집단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 |
| 1979년 |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 | “북한괴뢰집단의 군인(군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복무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북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지수·전향한 자” | 제2조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 조항 |
| 1993년 |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이하 “귀순북한동포”라 한다) | 제2조 보호대상자 조항 1997년 폐지 |
| 1997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 |

19 정부와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귀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6년(9월 30일)까지 8개 중앙지 기사제목에 ‘귀순’이 쓰인 것은 641건이다. 2011년부터 2016년(9월 30일)까지 401건, 2016년(9월 30일) 한 해에도 47건의 기사 제목에 ‘귀순’이 쓰였다. 2016년 8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공사인 태영호와, 그 가족의 한국행을 표현하는 데 정부와 언론에서는 ‘귀순’과 ‘망명’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것에 대해 한겨레에서는 ‘귀순의 귀환…재등장’이라고 하였는데, 신문기사의 제목에 ‘귀순’이 쓰여 온 현황을 참고하면, ‘귀환’이나 ‘재등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탈북’, ‘망명’ 표현도 있는데…‘귀순’의 귀환 한겨레 2016년 8월 19일 기사 참조.

에서 이는 ‘탈출’이 처음에 북한을 나올 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오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후 법령명에 쓰인 ‘북한탈출’이 ‘북한이탈’로 바뀌고, 조문 내용에서 ‘탈출’은 ‘벗어나-’로 바뀌게 된다.²⁰

‘탈북’은 ‘북한을 벗어나다’의 의미이다. ‘그것을 벗어남’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탈-’을 장소인 ‘북’에 앞세워, 행위자의 주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용어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탈북’은 다소 극적이면서 충격적으로 묘사되곤 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탈북’은 “숨죽이는 긴장이 감도는 국경 지역, 영하 20도, 얼음 낀 압록강을 막 건너온 사람들, 생과 사의 갈림길”이기도 하다.²¹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이들 집단이 경험한 ‘탈북’은 다소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기선, 1999: 188 참조). 따라서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탈북’이라는 표현은 ‘명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 역시 ‘북한을 벗어나다’는 의미를 갖지만, ‘탈북’과 달리 현상에 주목하여, “그 동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는(이우영, 2003: 29) 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²²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집단의 ‘명칭’을 구성하는 데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²³

20 국회 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대한민국 국회(<http://likms.assembly.go.kr> 1996, 12, 16, 회의록).

21 채널-A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특별취재 탈북”을 소개하는 글을 인용한 것이다(<http://tv.ichannela.com>).

22 ‘이탈’은 보통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무지 이탈’이나 ‘부대 이탈’, 혹은 ‘논의가 토론의 범위에서 이탈되다’와 같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맥에 주로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http://stdweb2.korean.go.kr>).

23 이덕연(2013)에서는 “‘이탈’이라는 표현이 탈출이나 귀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성격의 용어로 평가되고 있으나,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적합한 것인지 자체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상적인 합법체제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이탈을 떠올리게 하는 부정적인 어감의 용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던 1996년 당시에 사회적 맥락에서 ‘이탈’이라는 용어는 “산업연수생의 지정 업체 이탈” 혹은 “작업장을 이탈한

‘명칭’에서 [행위]의 의미를 더하는 용어 중에 ‘이주’가 있다.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명칭’을 구성하는 형태의 하나로 쓰이고 있는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다. 이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채택하지는 않았다.²⁴ 법안이 논의되던 1996년에 ‘이주’는 ‘탈서울 이주’, ‘공단 이주’, ‘철거 이주’, ‘이주 보상’, ‘수몰지역 이주’ 등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²⁵ 당시 국내 거주 외국인인 14만 8천 명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 오는 경우에 대해 ‘이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었으며, 가장 규모가 컸던 ‘이주 노동자’도 1990년대에는 ‘외국인노동자’라고 칭했다.²⁶ 이주(migration)는 국가 내지는 국경을 넘는 개인과 집단의 이동을 포괄하며, 난민, 추방자, 경제 이주 등 모든 인간의 이동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외연이 상당히 넓다.²⁷ 이른바 ‘이주의 시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과 거주 목적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주’가 갖는 보편적인 용법과 객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 [행위]의 의미 요소가 포함된 ‘명칭’을 모두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의미 자질로서 [행위]를 나타내는 형태 중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북한이탈’인 데 반해, ‘명칭’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것은 ‘탈북’이다. 표 3을 보면 ‘북한이탈’이 41종의 ‘명칭’에 쓰였는데, ‘탈북’은 47종의 ‘명칭’에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탈북’이라는 용어가 조어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며,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압축적이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 등에 쓰이기도 했다.

24 국회 사무처, “통일외무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대한민국 국회(<http://likms.assembly.go.kr> 1996. 12. 9. 회의록).

25 빅카인즈 1990년부터 1996년 신문기사 제목에 ‘이주’가 포함된 기사 참조.

26 1996년을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은 148,731명으로, 이 가운데 68,020명이 산업연수생이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1996 통계연보 참조(<http://immigration.go.kr>).

27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서 제공하는 이주(migration)의 정의를 참조하였다(<http://www.iom.int>).

표 3. [행위] 의미를 내포하는 형태와 ‘명칭’

| 형태 | 명칭의 예 |
|------------|---|
| ‘귀순’(5) | 귀순동포, 귀순북한동포, 귀순자, 북한귀순자, 이탈귀순자 |
| ‘북한이탈’(41) | 남성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가정아동, 북한이탈가정유아, 북한이탈간호대학생, 북한이탈고등학생, 북한이탈난민, 북한이탈남성주민, 북한이탈노인, 북한이탈대학생, 북한이탈부모, 북한이탈사회복지대학대학생, 북한이탈아동, 북한이탈아버지, 북한이탈어린이, 북한이탈어머니, 북한이탈여성, 북한이탈여성노인, 북한이탈여성자녀, 북한이탈여성주민, 북한이탈유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어머니, 북한이탈주민여성, 북한이탈주민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자녀(청소년), 북한이탈주민젊은세대, 북한이탈주민청소년, 북한이탈주민학생, 북한이탈중년여성,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소년, 북한이탈초등학생, 북한이탈학생전기아동, 북한이탈학생, 새터민(북한이탈주민)청소년, 여성북한이탈주민 |
| ‘이주’(6) | 북한이주민, 북한이주민여성, 자유이주민, 탈북이주민, 탈북여성이주민, 탈북이주자 |
| ‘탈북’(47) | 무국적탈북자, 새터민(탈북자), 여성탈북민, 여성탈북자, 탈북1인가구, 탈북가정, 탈북가족, 탈북간호대학생, 탈북고등학생, 탈북교사, 탈북난민, 탈북대학생, 탈북동포, 탈북디아스포라, 탈북민, 탈북배경청소년, 탈북부모, 탈북북한동포, 탈북북한주민, 탈북새터민, 탈북새터민대학생, 탈북새터민청소년, 탈북신학생, 탈북아동, 탈북아동청소년, 탈북여성, 탈북여성이주민, 탈북유아, 탈북의료인, 탈북이주민, 탈북이주자, 탈북인, 탈북자, 탈북자간첩, 탈북정착자, 탈북주민, 탈북중·고령자, 탈북중학생, 탈북청년, 탈북청소년, 탈북초등학생, 탈북학부모, 탈북학생, 탈북학생(청소년), 탈북후기청소년, 북한(탈북)청소년, 해외체류탈북자 |
| ‘탈출’(1) | 북한탈출주민 |

(2) [정체성]의 의미 요소

‘명칭’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의미 요소로 [정체성] 자질이 있다.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보통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과 관련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진경, 1997; 허영식, 2016 참조). 이 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혹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하는 어휘 형태를 [정체성] 의미 자질로 분석하였다. [정체성]의 의미 자질은 다양한 어휘 형태에 반영되는데, ‘명칭’에서는 ‘난민’, ‘동포’, ‘새터민’, ‘이주민’, ‘이주자’, ‘정착자’, ‘주민’, ‘탈북민’, ‘탈북인’, ‘탈북자’ 등 10종의 형태를 추출하였다.

이들 [정체성]의 의미 요소들은 시기별로 쓰인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시기별로 ‘귀순자’와 ‘동포’는 2000년 이전에만 쓰였으며, ‘새터민’, ‘탈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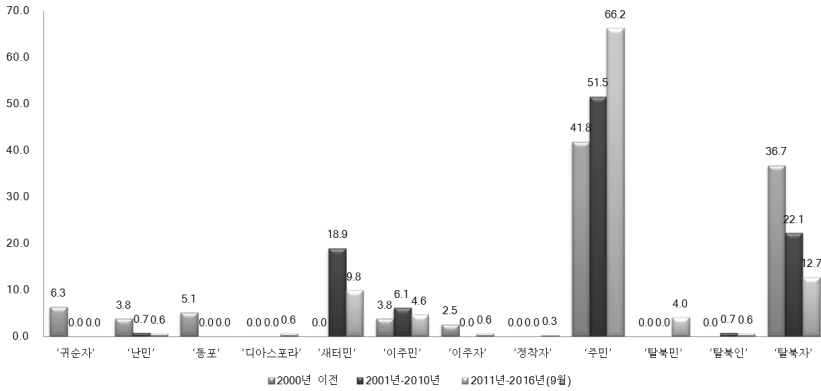


그림 4. [정체성] 의미 요소의 시기별 사용 현황(단위: %)

은 2000년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 ‘정착자’, ‘탈북민’은 2011년 이후에 ‘명칭’에 쓰이기 시작했으며, ‘주민’, ‘탈북자’, ‘이주민’, ‘이주자’는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명칭’에 쓰이고 있다. 이들 [정체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형태 중에서 현재 ‘명칭’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주민’이다.

‘귀순자’와 ‘동포’는 1962년과 1993년에 각각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에 쓰이게 된 것이고, ‘주민’은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에 [정체성]을 내포하는 의미 요소로 쓰이게 되었다. ‘새터민’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탈북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대체하고자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통일부 제안으로 사용하던 용어이다. ‘명칭’에서 [정체성]을 내포하는 형태로 ‘주민’의 비율이 높은 것은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대부분의 학술 논문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귀순자’와 ‘동포’는 관련 법률이 폐지되면서 2000년 이후 쓰이지 않는 것이다. 법률 용어가 ‘귀순자’에서 ‘동포’ 그리고 ‘주민’으로 대체된 것은 대상의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인데,²⁸ 특히 2000년 이후 대상 집단의 다양한 특성이 새롭게 포착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로서 ‘난민’, ‘디아스포라’, ‘탈북민’, ‘이주민’ 등이 학술 논문을 통해 나타난다. 이 중 ‘탈북민’은 ‘북한이탈

주민’의 준말로 쓰이고 있다.²⁹ ‘북한이탈주민’이 의미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여섯 음절을 발음해야 하므로 다소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줄여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북’과 ‘북한이탈’은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므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난민’, ‘이주민’, ‘주민’, ‘탈북자’이다. 이들 [정체성]을 규정하는 용어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대상을 인식하는 혼란스러운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체성] 의미 자질의 ‘난민’, ‘이주민’, ‘주민’, ‘탈북자’는 특정한 공간을 배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들 용어와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면 공간과 관계있는 특정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간과 관련한 이들의 특징으로 [± 북한 거주]와 [± 남한 거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는 ‘명칭’에 쓰인 [정체성] 의미 자질을 갖는 용어와 함께 쓰이는 연관어를 제시한 것이다.³⁰

표 4를 보면, ‘난민’과 ‘탈북자’, ‘이주민’과 ‘주민’의 연관어가 각각 겹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난민’과 ‘탈북자’는 ‘중국’과 ‘베이징’, ‘강제 송환’, ‘유엔인권이사회(UNHCR)’ 등의 연관어가 겹친다. ‘이주민’과 ‘주민’은 ‘사회정착’, ‘새터민’, ‘통일부’라는 연관어가 겹치는데, 이들 용어가 쓰이는 맥락에 공통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간과 관련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거주 혹은 체류라는 관점에서 연관어를 분석하면, ‘난민’과 ‘탈북자’는 [- 북한 거주], [- 남한 거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주민’과 ‘주민’은 [- 북한 거주], [+ 남한 거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관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국제

28 ‘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의 명칭이 만들어진 사회·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병호(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이덕연(2013)과 유지웅(2007)에서도 이들 명칭에 대한 일련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29 법원의 판례문에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한다)’라고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쓰는 의도로 ‘탈북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술 논문에서도 다른 개념에서가 아니라 줄임말의 의도로 ‘탈북민’을 쓰고 있다.

30 [정체성] 의미 자질을 갖는 이들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이슈 분석을 활용했다. 빅카인즈의 이슈 분석은 신문 기사에서 검색어와 함께 쓰인 연관어(고빈도 어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이 학술논문의 제목에 쓰인 용어를 대상으로 하면서, 연관어 분석은 신문 기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통일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연관어 분석이 이들 용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 포함하였다.

표 4. [정체성] 의미 요소의 연관어

| '난민' | '탈북자' | '이주민' | '주민' |
|---|--|--|--|
| REFUGEE, UNHCR , 강제 송환 , 국경지방, 도교, 러시아, 베이징 , 보복 위협, 보트피플, 북주민, 식량난, 영리 인권기구, 워싱턴 , 중국 , 중국 정부 , 중국국경, 청원서, 탈북자 | 강제 복송, 강제 송환 , 독일학교, 동남아국가, 베이징 , 北京, 스페인대사관, 워싱턴 , 유엔인권이사회 , 재중 공관, 조선족, 중국 , 중국당국, 중국 정부 | IPCNKR, 결혼식, 고용지원센터, 귀순자, 남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정착 , 새터민 , 선입견, 위탁 협약,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정착도우미들, 지역사회, 지원사업, 탈북자, 통일부 , 호소문 | 가족결연, 남북하나재단, 남한사회적응, 사회정착 , 새터민 , 실업률, 일자리 제공, 임대주택, 정착지원, 통일부 , 하나원 |
| [- 북한 거주] [- 남한 거주] | | [- 북한 거주] [+ 남한 거주] | [- 북한 거주] [+ 남한 거주] |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은, ‘유엔인권이사회’, ‘UNHCR’와 함께 쓰이는 [- 북한 거주], [- 남한 거주]의 자질을 갖는 ‘난민’ 혹은 ‘탈북자’임을 알 수 있다.³¹ 따라서 이 두 용어는 거주 혹은 체류 공간의 의미 자질을 참고할 때 ‘북한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온’ 경우 ‘이주민’과 ‘주민’을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주민’은 소수자 혹은 소수 집단으로서 이주민(migration)이라는 정체성에 주목한 것이다.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탈북 동기가 식량을 구하겠다는 생존 차원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자 한 개념이기도 하다(정병호, 2004; 윤인진, 2009; 2012). ‘이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일컫는 용어이지만, 결혼이주민과 노동이주민을 아우르는 개념인 만큼, 북한에서 온 사람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지는 못한다(이용승, 2016: 16). 법률상 국경 관리 차원의 대상이 아니

31 학술 논문에서 제목과 키워드에 쓰인 ‘탈북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번역한 영어 표기를 분석해 보면 각각 45.2%와 36.2%가 ‘refugee’와 대응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탈북자를 난민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승(2016: 7)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영문명도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에서 ‘NORTH KOREAN REFUGEES’로 바뀌었는데, 대상 집단을 난민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다.

며, 분단 이전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서도 다소의 이질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데 어색함이 없다. 그 심층적인 특성이 이른바 다문화 사회의 여타 이주민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³²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의미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즉, 거주민을 의미한다.³³ 어휘 의미상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생활 세계라는 일상의 공간을 전제할 때, ‘주민’은 가치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어휘 의미상으로 ‘주민’은 ‘이주민’의 상위어에 속한다. 의미 관계에서 ‘주민’은 ‘이주민’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주민’은 ‘주민’을 함의할 수 없는 것이다.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어휘 의미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 온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주민’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체성]의 의미가 내포된 ‘명칭’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5와 같은 것이 있다.

표 5를 보면, ‘명칭’에서 [정체성]의 의미 자질을 내포하는 형태 중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것은 ‘새터민’이다. ‘새터민’은 모두 20종의 ‘명칭’에 쓰여, 가장 생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통칭하는 어휘로 정의하고 있다.³⁴ ‘새터민’이 포함된 ‘명칭’ 중 ‘북한새터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새터민(탈북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탈북새터민’과 같은 경우 동의중복이다. ‘새터민’이 포함된 ‘명

32 최대석·박영자(2011)에서는 5005년 이후 한국사회에 다문화 상황이 전개되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학계와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이들을 다문화 이주민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된 것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다문화 집단과 다르게 접근할 현실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3 ‘지방자치단체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조항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법적인 개념에서 ‘주민’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34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새터민’의 유의어로 ‘탈북인’과 ‘탈북자’가 함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http://stdweb2.korean.go.kr>에서 검색).

표 5. [정체성] 의미를 내포하는 형태와 '명칭'

| 형태 | '명칭'의 예 |
|------------|---|
| '귀순자'(3) | 귀순자, 북한귀순자, 이탈귀순자 |
| '난민'(2) | 북한이탈난민, 탈북난민 |
| '동포'(4) | 귀순동포, 귀순북한동포, 탈북동포, 탈북북한동포 |
| '디아스포라'(1) | 탈북디아스포라 |
| '새터민'(20) | 대학내새터민들, 북한새터민, 새터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청소년, 새터민(탈북자), 새터민가족, 새터민대학생, 새터민동료상담자, 새터민부모, 새터민여성, 새터민여아, 새터민유아, 새터민자녀, 새터민중고령자, 새터민초등학생, 새터민학생, 여성새터민, 청소년 새터민, 탈북새터민, 탈북새터민청소년 |
| '이주민'(5) | 자유이주민, 탈북여성이주민, 북한이주민, 북한이주민여성, 탈북이주민 |
| '이주자'(1) | 탈북이주자 |
| '정착자'(1) | 탈북정착자 |
| '탈북민'(2) | 여성탈북민, 탈북민 |
| '탈북인'(1) | 탈북인 |
| '탈북자'(4) | 무국적탈북자, 여성탈북자, 탈북자, 해외체류탈북자 |
| '주민'(19) | 남성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남성주민, 북한이탈여성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어머니, 북한이탈주민여성, 북한이탈주민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자녀(청소년), 북한이탈주민젊은세대, 북한이탈주민청소년, 북한이탈주민학생, 북한탈출주민, 여성북한이탈주민, 탈북북한주민, 탈북주민 |

칭'에는 동의중복이 다른 '명칭'보다 많다. 이는 '새터민'이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³⁵ 지시적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의미 보충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병기한 결과이다. '새터민' 다음으로 많은 '명칭'에 쓰인 형태는 '주민'이다. '북한탈출주민'과 '탈북주민'을 제외하면 '북한이탈'과 함께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법률 용어로서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 북한 거주]의 의미만을 내포하는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이라는 의미가 된다.³⁶ 따라서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35 정부에서는 '새터민'의 의미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36 이덕영(2013)과 최유(2014)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

있는 북한에서 온 집단을 지칭하는 데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없다.

4.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이 대상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다른 집단과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로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상에 대한 이름짓기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개념 형성과 용어 선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분석한 ‘명칭’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회적 평가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개별 사례로 인식되던 행위가 2000년 이후 집단적 행위로 포착되면서 이들의 행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생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126편 학술 논문의 제목을 대상으로 121종의 ‘명칭’을 추출하여 개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부터 ‘명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성별]과 [연령], [행위], [정체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들이 추가되어 ‘명칭’이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었는데, ‘북한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의 통칭이 25종에 이른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집단에 대한 ‘명칭’이 다양한데, ‘명칭’에 ‘여성’과 ‘청소년’이 포함된 것이 각각 14종이 있었다. 이 중에는 ‘북한이탈여성주민’, ‘북한이탈주민여성’, ‘여성북한이탈주민’이나, ‘새터민청소년’, ‘청소년새터민’처럼 용어의 순서만 달라진 것도 있었는데, 동일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한 ‘명칭’이 과도

하지 못한다는 법적 문제제기도 있다. 최유(2014)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과 선택을 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같이 그 개념 규정을 새로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게 혼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어적으로 ‘명칭’은 ‘북한’, ‘탈북’, ‘이탈’, ‘주민’ 등의 명사와 [사람]의 의미를 더해주는 ‘-자’, ‘-민’, ‘-인’과 같은 접미사가 결합한 복합 구성이다. ‘탈북자’, ‘탈북주민’처럼 3종의 형태가 결합한 구성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2종의 형태가 결합한 것이 22.9%, 4종 형태가 결합한 것이 21.9%이며, 5종이 결합한 명칭은 2.6%를 차지했다. ‘명칭’을 구성하는 형태 수가 많아질수록 내적인 구조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명칭’에 개입하는 형태가 각각의 개념으로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만큼, 구조가 복잡하면 ‘명칭’에 담긴 개념과 의미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새터민’, ‘탈북새터민’, ‘탈북북한주민’과 같이 잉여적인 명칭도 있다.

‘명칭’을 구성하는 의미 요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행위]와 [정체성]이다. 특히 [행위]의 의미를 내포하는 형태가 ‘명칭’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명칭’의 대상이 갖는 여러 속성 중에서 ‘북한을 벗어나다’는 행위에 주목한 결과이다. ‘명칭’에서 [행위]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는 ‘귀순’, ‘북한이탈’, ‘이주’, ‘탈북’, ‘탈출’이다. 이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북한이탈’이지만, ‘이탈’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기는 문제가 있다. [행위]와 관련하여 ‘이주’가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과 이주 목적을 포괄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판단된다.

[정체성]의 의미 자질을 내포하는 기능은 ‘명칭’에 포함된 ‘난민’, ‘동포’, ‘새터민’, ‘이주민’, ‘이주자’, ‘정착자’, ‘주민’, ‘탈북민’, ‘탈북인’, ‘탈북자’ 등이 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명칭’에 포함되는 것은 ‘난민’과 ‘탈북자’, ‘이주민’과 ‘주민’이다. 신문기사 속에 함께 쓰인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난민’과 ‘탈북자’가 ‘중국’과 ‘베이징’, ‘강제 송환’, ‘유엔인권이사회’ ‘UNHCR’과 함께 쓰이는 반면, ‘이주민’과 ‘주민’은 ‘사회정착’, ‘새터민’, ‘통일부’와 함께 쓰이는 등 각각의 용어가 쓰이는 맥락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온’ 경우를 일컬을 때 [+ 남한 거주]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명칭’을 구성하는 데 가장 폭넓게 쓰이는 [정체성]의 의미 요소는 ‘주민’이다. ‘이주민’은 소수자 혹은 소수 집단으로서 이주민(migration)이라는 정체성에 주목한 용어로,

‘다문화’ 담론에 이들 집단을 포함하여 ‘명칭’의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다. 때문에 대상 집단에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명칭’이나 용어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인정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칭’에 편향된 가치체계보다는 현상에 대한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여타 소수 집단과의 변별 기능과 가치중립적인 명칭을 모색하기 위해, 개념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위]와 [정체성]은 물론 이주 방향에 주목하여 ‘명칭’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주민’을 제안한다. 상위 개념으로서 주민에서 집단의 특수성을 구분하기 위한 [행위] 표지로 ‘이주’를, 이주의 방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북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이주주민’은 이용승(2016)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³⁷ 이 ‘명칭’이 갖는 현재성과 중립적 의미에 동의한다. 이 ‘명칭’이 정부가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에서 ‘이탈’을 ‘이주’로 교체한 형태인 점은 한계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북한 주민’이라는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북한이주주민’은 ‘북한에서 이주해 온 주민’의 의미이므로 현재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 구조도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이주주민’이 갖는 내연이 가치중립적이며 기술적(記述的)인 표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명칭’의 형성과 소멸은 언어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인식과 개념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슈로 새로이 등장한 ‘북한이주주민’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평가와 정책적 대응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합의된 ‘명칭’이 없다. 이는 ‘북한이주주민’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세계를 외면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와 대응을 위한 올바른 시작으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

37 정확하게 이용승(2016: 16)에서는 ‘북한이주 주민(denisens from North Korea)’이라고 하였다.

를 제안하고자 한다. ‘북한이주주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인식공유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정애·손영철·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2(2), 215-248.
- 국립국어원, 2010, 소수자 구별언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김도혜, 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05-333.
- 김화순·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20(2), 37-73.
- 서종남, 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현황분석 및 다문화교육 관계자 FGI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6(2), 145-168.
- 안태숙 외, 2010, 소수자 구별언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유지웅, 200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통일문제연구, 19(1), 5-372.
-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 윤인진, 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41, 37-61.
-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 125-149.
- 이덕영, 201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자의 법적 지위, 법학논총, 20(2), 297-326.
- 이민경·이수정, 2011,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37.
- 이용승, 2016,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연구, 66, 4-23.
- 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71.
- 이진경, 1997,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정체성의 미시정치학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35, 8-33.
- 이현숙·유해숙, 2015, 탈북 청소년의 낙인 현상과 대응, 민족연구, 62, 179-200.
- 이화숙, 2013,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 -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 집단의 ‘명칭’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5, 247-272.
- 정기선, 1999,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통일문제연구, 11(1), 173-189.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의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10(1), 99-62.
- 최대석·박영자, 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51(1), 187-215.
- 최대석·조영주, 2008, 탈북자 문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2), 87-119.
- 최원오, 2012, 다문화사회와 탈북이주민, 통일인문학, 54, 257-285.
- 최유, 201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논문집, 38(3), 5-27.
- 허영식, 2016,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동향과 함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6(1), 167-196.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1997년~201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 빅카인즈 <http://www.bigkinds.or.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2016.10.16 접수, 2016.11.9 수정, 2016.12.26 게재확정

A Study on the ‘Appellation’ for ‘Communities from North Korea’ -Focused on the Meaning of Actions and Identity

Hwa-Sook Yi** · Sun-Ok Won**

Abstract_This paper made an analysis of the appellation for ‘Communities from North Korea’ focused on the meaning of actions and identity. In spite of 121 appellations written on 1,126 paper titles, the researchers tend to create ‘Appellation’ arbitrarily. ‘Appellation’ have made in a variety of versions since the year 2000 and it appears to have compound forms added with the vocabularies involving gender, age, actions, and identity. Among ‘Appellation’, there are 25 types for the example of a common name and there are 14 names for women and teenagers, which have combined excessively. The most vocabularies are expressed for actions and identity among the vocabularies in naming. As the semantic components have taken on a different time-periodic usage aspect, the vocabulary indicated action, ‘migration’ and the vocabulary indicated identity, ‘residents’ are more commonly used. This paper suggests the name as ‘Denizens from North Korea’ considering the objectivity and the currentness of its meaning.

Keywords_Appellation, North Korean Escapees, North Korean Defectors /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Migrants, Denizens from North Korea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ectu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kokkomai@daum.net

** KyungWoon University, Professor, Social Welfar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asongjung@hanmail.net